

---

# 경상북도 방언 이야기

이상규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 1. “할뵤교?”(=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방언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방언 중에서도 행정 경계를 기준으로 한 임의적인 용어이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용어 이외에 좀 더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여 동남 방언 또는 영남 방언이라는 용어도 사용되지만 이 또한 명확한 용어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잠정적으로 경상북도 방언이라고 불러도 크게 틀림이 없는, 다른 지역의 방언과 구분되는 여러 가지 특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경상북도 방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경상북도 방언은 의문형 종결 어미의 사용 양상에 따라 대개 3가지 말씨로 하위 구분을 한다.

첫째,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동부 지역에서는 ‘하니껴체’를 쓴다. 예를 들어, 표준어의 “아저씨, 어디 가십니까?”를 이 지역에서는 “아제요, 어디 가니껴?”라고 한다.

둘째, 경주를 중심으로 한 경북 남동부 지역에서는 ‘하능교체’를 쓴다. 예를 들어, 표준어의 “아저씨, 어디 가십니까?”를 이 지역에서는 “아제, 어디 가능교?”라고 한다.

셋째, 상주, 김천을 중심으로 한 서북부 지역에서는 ‘해여체’를 쓴다. 예를 들어, 표준어의 “아저씨, 어디 가십니까?”를 이 지역에서는 “아제, 어디 가여?”라고 한다. 아마 경상북도 바깥의 외지 사람들은 이러한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겠지만 경상북도에 살고 있는 토박이들은 이와 같은 인사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 사람이 안동 사람인지, 경주 사람인지, 김천 사람인지 쉽게 구분한다.

이러한 어법상의 특징 외에 음운적인 특징도 있다. ‘으’와 ‘어’, ‘ㅅ’과 ‘ㅆ’이 구분되지 않아 서울로 전학을 간 경상도 출신 아이가 ‘음악’을 ‘엄약’으로 발음하거나 ‘쌀’을 ‘살’로 발음하여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경상북도 사람들은 이처럼 ‘으’와 ‘어’, ‘에’와 ‘애’를 잘 구분하지 못하며, ‘외’와 ‘위’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외’와 ‘위’를 단모음으로 발음하지 못하는 현상은 전국에 보편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경상북도 방언에서는 특히 더 심하며, ‘외’, ‘위’의 발음이 타 지역보다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령 ‘외’는 단모음 ‘외’[ϕ]가 아니라 이중 모음인 ‘왜/웨/위’로 발음하거나 아예 ‘이’로 발음하고(예: ‘똥장(똥장, 똥장, 똥장, 단장), ‘외삼촌(왜삼촌, 웨삼촌, 위삼촌, 이삼촌)), ‘위’[y]는 이중 모음인 ‘위’[wi]로 발음하거나 아예 ‘우’나 ‘이’로 발음한다(예: ‘쥐(지), ‘귀신(구신, 기신)). 그리고 ‘와’, ‘위’도 역시 단모음으로 낸다.(예: ‘과자(까자), ‘천원(쳐넌), ‘뒤편(머라쑈)). 그런데 ‘위’의 경우에는 ‘오’로 축약되는 일도 있다(예: ‘권투(꾼투), ‘뉘라(노라), ‘뉘라(도라), ‘뉘라(조라)).

그러나 표준어에 규정된 음소보다 더 단축한 음소로도 의사소통에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는다. 그 대신 다른 방언에 없는 ‘말(馬)’(높은 소리로 발음)과 ‘말(言)’(낮고 긴 소리로 발음)이 다르며, ‘우리(‘고저’로 발음, 돼지 우리)’와 ‘우리(‘저고’로 발음, we)’가 다르다. 성조, 곧 말의 높낮이와 장음을 갖고 있어 다른 지역 방언과는 구분된다.

경상북도 방언에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방언 어휘가 참으로 많다. 경북 상주 지역의 방언의 예를 들어 보자. ‘홍고래비

(방아깨비 암늬), ‘개밥띠디기(땅강아지)’, ‘오좁질개(사마귀)’, ‘곰백상어(진드기)’, ‘말밤나물(민들레)’, ‘비실꽃(맨드라미)’, ‘까시게사랭이(씀바귀)’, ‘간치나물(도깨비나물)’, ‘사기풀(억새풀)’, ‘질루나무(짚레)’, ‘고자베기(뿌리 썩은 것)’, ‘삭따구리(삭정이)’, ‘잉그러기(불 지피는 나무, 불살개)’, ‘말밤씨(마름)’, ‘쪼대흙(찰흙)’, ‘터구(안개)’ 등등 수없이 많은 방언들이 존재한다. 이 같은 방언은 지역의 문화와 전통과 관련 있는 언어 유산으로서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언어의 체계적인 차이 외에 경상북도 방언의 특징으로 언어 축약 현상을 들 수 있다. 조사나 어미를 생략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 전달을 위한 주요 성분 외에는 과감하게 생략해 버린다. 박정희 소장이 군사 쿠데타를 모의하던 날, 동창인 왕 모씨를 부산에서 만나 말없이 술만 마시다가 ‘됐나?(=됐나?)’ ‘됐다.(됐다)’라는 말로 바로 그 다음 날 5·16이라는 역사적 거사를 행동으로 옮겼다는 비화가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금도 여럿이 뜻이나 힘을 모으거나 행동의 결단을 할 때에는 이 말을 관습적으로 쓴다.

서울 사람들은 할아버지께 인사드릴 때 “할아버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라고 인사하지만 경상도 사람들은 “할배고?”(=할아버지,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또는 할아버지,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라고 인사한다. 얼핏 듣기에는 더없이 무뚝뚝해 보이는 인사법이다. 표준어로 옮기면 “할아버지 입니까?” 정도일텐데 이런 표현이 어디 인사말이라고나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처럼 축약된 말 속에는 천 길의 넘는 깊은 마음의 정을 은근하게 감추고 노출하지 않는 심성이 담겨 있으니, 영남인들의 심성을 태산교악(泰山喬嶽)이라 함은 이러한 말씨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은가 싶다.

경상북도 사람들의 방언은 상황 의존적 경향이 매우 강하다. 때에 따라서 경상도 사람들 말씨는 논리성이 매우 떨어지며 조리가 없어 보인다. 경상도 사람들이 말수가 적어 보이고 무뚝뚝해 보이는 이유나 방송 인터뷰에 나오면 웬지 어색해 보이는 것도 그러한 이유가 아닐까?

## 2. ‘콩나물히집’, 민초들의 잔치 음식

경상북도의 기반 산업 구조는 농업이기에 경상북도는 전형적인 농도(農道)라 할 수 있다. 또한 전라도와는 달리 산악 지대가 많기 때문에 논 농사보다 밭농사가 매우 발달된 지역이어서 농경어의 사용 어휘에서도 차별성을 보인다. 농경 생활과 관련된 방언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를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어 거의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어 조사 사업을 통해 소멸 위기에 있는 어휘들을 무형 문화재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수집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다.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음식 문화이다. 경상북도 중에서도 안동 지방에서는 최상의 제사 음식으로 꼽는 것은 문어(文魚)이다. 남해에서 생산되는 문어 80%가 안동 장에서 소비된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경주 지방에서는 상어(돔배기)를 편으로 떠서 꼬치로 만든 ‘돔배기’없이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 음식으로 친다. 잔치 음식으로는 육회, 반가(班家)의 고급 음식으로는 생치(생뽕고기)와 북어를 두드려서 마치 솜과 같이 가늘고 부드러운 가루처럼 만들어 조미한 ‘피움’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식혜(食醴)도 재료나 만드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 안동 지방에서는 식혜에다가 무, 배, 생강, 마늘, 밤 등의 다양한 재료를 채 썰어 넣고, 고춧가루도 넣어 얼큰하고 달고 시원하게 만들어 먹는다. 경주 지역에서는 맵쌀로 만든 것은 ‘단술’이라고 하고 찹쌀로 만든 것은 ‘점주’라고 하여 안동 지방의 식혜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음식 문화는 특히 민초들과 양반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요사이도 돈 많은 사람들만 출입하는 멤버십 또는 클럽을 구성하여 있는 자가 없는 자와 구분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옛날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다. 특히 잔칫날 음식은 반상(班常)의 차이를 크게 보여 준다.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지역의 민촌에서는 잔칫날이 되면 국수와 ‘콩나물히집’라는 음식을 해 먹는다고 한다. 반가(班家)에서는 큰상을 차리는데 온갖 기름진 음식을 만들어 올리지만 상주 일대의 민초들은 콩나물을 삶아 콩가루에다 버무리

서 만든 잔치 음식인 ‘콩나물허집’라는 음식을 만들어 손님을 접대한다고 한다.

무청을 말린 것으로 국을 끓인 ‘시래기국’, 무채로 끓인 ‘무국’, 애동호박 찌집(애호박 지짐이), 잘 익은 호박에 콩이나 팥을 넣어 삶은 ‘호박범벅’, 밥에 호박을 썰어 넣은 ‘호박밥’, 쌀가루와 호박 채를 시루에 찐 ‘호박떡’ 등 농가의 일상 음식들 모두 우리들에게 추억의 입맛을 돋게 한다. 산나물로는 ‘취나물’, ‘개나물’, ‘개양추’, ‘참추’, 들나물로는 ‘나새이(냉이)’, ‘고들빼기’, ‘까시게사래이’, ‘달래이(달래)’, ‘비름’, ‘질깅이(질경이)’, ‘말방나물(민들레)’, ‘참뚜깇’ 등이 있는데, 이들 나물에는 ‘담복장’과 ‘당기장(등겨로 만든 장)’을 곁들이면 봄철 잃어버린 입맛을 살려 주는 다시없이 좋은 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뿐 아니다. 밀기울로 만든 ‘밀개떡’, 보리등겨 가루로 만든 ‘당기장’과 같은 민촌 음식은 요즈음과 같은 참살이(웰빙) 시대에는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건강 음식이 되었으니 음식 문화에도 상전벽해가 있는가 보다.

### 3. ‘짜cker리’, 서울 말씨가 아니니까 버려야 하는 것일까?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세시와 관련한 놀이 풍속이 매우 발달하였다. 경상북도 상주 지역의 민속 세시에 대해 살펴보자. 정월 보름이면 ‘마당놀이’가 시작된다. 북과 장구 등 풍물을 앞세우고 ‘관대영감(포수)’, ‘새대기(색시)’가 등장하여 풍물을 치며 집집마다 돌아다닌다. 이와 함께 ‘다쫄놀이’라는 이 지방 특유의 놀이가 있는데 낮 끝에 짚을 걸어서 낮자루를 둘러가며 새끼를 꼬는 것을 ‘다쫄드린다’라고 한다. 농한기인 정월에 ‘다쫄놀이’로 끈 ‘다쫄’을 태우는 놀이를 하면서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한다. 상주 공성면 구릉마(용안)와 큰마(평천) 간에 햇불싸움으로 마을 간의 친선을 도모하기도 한다. 정월 보름날 소 앞에 ‘부시럼밥’을 차려서 풍년을 점치는데, 소가 부시럼밥으로 차린 밥을 먹으면 풍년이 오고 나물을 먹으면 흉년이 온다고 한다. 이월에는 용두할미가 내려오는 ‘이월밥’을 해먹고 가족의 건강을 기원한다. 5월에는 ‘양네 태이는 날’이 있는데 이날은 아이들

이나 일꾼에게 용돈을 주고 돌려 준다. 6월 유두날에는 ‘밀개떡’을 네모지게 만들어 ‘채렵(겨름: 껌질을 벗긴 삼대)’에 끼워서 논둑 곳곳에 꽂아 두고 풍년을 기원하는 이 지역만의 독특한 민속 풍속도 있다. 세불 논매기가 끝나면 일꾼들에게 무명 바지저고리를 한 벌씩 해 입히고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하루를 놀게 한다. 일종의 호미씻이놀이인데 이 지역에서는 ‘뽀비기묵는다’, ‘서리치술몽는다’ 등의 방언으로 무척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다.

1월 동지가 되면 팔죽을 끓여 먹고 ‘성주짜거리[-짜꺼리]’ 앞에 가서 내년에도 풍년을 기원하고 집안의 건강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낸다. ‘짜거리’란 짚으로 엮어서 만든 일종의 ‘뒤주’를 뜻하는 이곳 방언형이다. ‘짜거리’라는 말이 서울에 없으니까 저 시골 지역에 쓰이는 말씨이니까 내버려야 하는 것일까?

정월이면 ‘연날기’와 ‘꿩디(꿩이)돌리기’, ‘맛떼이(자치기)’, ‘햇불싸움(햇불싸움)’, ‘지불놀이(쥐불놀이)’를 하고 밤이 되면 아이들은 다리를 서로 엇갈리게 끼워서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두만두 두만두 짹빠리 양반 동김치 짜리묵”이라는 노래를 하는 놀이도 즐긴다. 여자 아이들은 ‘반두깨미<sup>1)</sup>(소꿉놀이)’, ‘공개놀이(공기놀이)’를 즐긴다. 민족 시인 이상화의 <방문거절>이라는 시에서 “방두께 살자는 영여여! 너거든 오지 말아라.”에서 ‘방두께’가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실려 있지 않는 경상도 방언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 사람들은 물론이고 시 평론가들도 이 낱말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여름이 되면 ‘밀씨리’, ‘수박서리’, ‘이(참외)서리’, ‘콩서리’로 물가에 둘러앉아 옹기종기 놀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새록새록하다.

지난 시절 아이들의 놀이는 자연과 더불어 자연을 대상으로 자연과 함께한 놀이였다. 특히 납작한 돌로 하는 돌던지기(비석치기) 놀이는 놀이 종류와 방법이 매우 다양하였다. ‘임술놀이(돌 던져 맞추기)’, ‘똥치기(똥

1) 소꿉놀이’에 대한 경북 방언은 ‘반두깨미’ 외에도 아주 다양하다. 지역에 따라 ‘방두깨비; 방두깨미, 방드깨미, 빵드깨미; 방드갱이, 방더갱이, 방두갱이, 방뜨갱이, 빵뜨갱이; 방즈갱이, 방주갱이, 빵주갱이; 빵갱이’, ‘동두깨비, 동도깨비, 동대깨비, 동디깨비; 동더깨비; 동지깨비; 동더까래’, ‘세간살이’ 등이 사용된다.(『한국방언자료집 VIII(경상북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9: 133) 참조.)

걸음질로 돌 맞추기), ‘발등치기(발등으로 던져 돌 맞추기)’, ‘애기놓기(다리 사이에 돌을 끼워 맞추기)’, ‘애기엮기(등 위에 돌을 엮어 맞추기)’, 애기젓딴이기(가슴 위에 돌을 엮어 맞추기), ‘물이기(물동이를 이듯이 머리 위에 돌을 엮어 맞추기)’, ‘빈자놀이(손 위에 돌을 엮어 맞추기)’, ‘물지기(어깨 위에 돌을 엮어 맞추기)’와 같이 매우 다양한 놀이와 그 방언형이 아직 고스란히 남아 있다. ‘마부리치기(구슬치기)’, ‘땅따먹기’, ‘말타기’, ‘장기치기(짚을 둥글게 말아 막대로 치면서 노는 놀이)’, ‘고무줄놀이’, ‘수건돌리기’, ‘낫뽑기’, ‘때기치기(딱지치기)’, ‘그림자놀이’, ‘꼰디기놀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아이들의 공동체 놀이가 이제는 컴퓨터 게임으로 바뀌어 혼자 밤을 지새우는 문명 놀이로 바뀐 지 오래다.

우리말의 품격을 유지하는 데 방언이 무슨 방해할 하는가? 방언이 있어 어찌면 더 풍족한 언어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인 언어인 표준어 중심의 사유에 빠져 그동안 방언을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 온 것을 반성할 때이다. 방언 가운데 그 지방의 문화적 전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휘들은 비록 사용자의 수가 적다고 할지라도 사라지면 영원히 다시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립국어원에서 남북을 통합한 지역어 조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다행스럽다. 사전에도 실리지 않은 방언들을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의무가 남과 북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 중심부의 언어와 변두리 언어가 서로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교호적인 관계로 발전될 때 한 민족, 한 언어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며, 진정한 민족 통일의 소망이 성숙될 것이다.